

담양 딸기 '메리퀸' 시장 평가 호평

높은 당도·경도·아삭한 식감 등 장점 많아 시장 경쟁력 높아... 재배면적 확대 관건

담양군은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도매시장 경매사를 대상으로 담양에서 육성한 신종 딸기인 '메리퀸'에 대한 홍보 및 시장 평가를 개최했다.

신종 딸기 '메리퀸'은 '설탕'과 '매향'을 교배한 품종으로 당도가 매우 높고 모양이 장원추형으로 예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도 역시 높아 3월에 기온이 올라가면 쉽게 물러지는 다른 딸기와는 달리 단단하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확하여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고품질을 유지한다.

가락시장에서도 '메리퀸' 시장 평가 후 품질을 두고 호평이 주를 이뤘다. 특히 딸기 맛이 떨어지는 3월 이후에 당도와 경도가 높은 '메리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소비자의 수요 충족으로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하여 지속적인 물량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육성자인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이철규 박사는 "고당도 고경도 딸기 품종인 '메리퀸'은 우수한 맛에 저장성까지 갖춰 소비자와 유통인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대 관건인 '메리퀸' 재배면적 조기 확대를 위해 올해 담양 신종 딸기 재배단지 2개소 조성할 예정에 있다"며, "또한 우수종묘

중식보급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센터 내에 딸기 육묘 스마트온실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보성군, '고로쇠' 휴양림 숙박객 무료 시음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2월부터 신비의 약수로 알려진 제암산 고로쇠 수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발 807m의 제암산에는 100여년 전부터 자생하는 아름답고 고로쇠나무 100여 그루와 20여년 전에 식재한 5만여 그루의 고로쇠 나무가 자라고 있다.

고로쇠 수액은 채취가 끝나는 3월말까지 제공된다. 제암산 고로쇠 수액은 청정 특산물 해풍을 받아 자라고 있으며 숙취해소와 노폐물 제거, 피부미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996년 개

장 이래 등산과 가족모임, 단체 워크숍 등 전국 최고의 휴양 명소로 알려지면서 매년 20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질리인과 에코어드벤처 체험 등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놀이 숲'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웰니스 관광지", "마이스(MICE) 시설"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전남에서 유일하게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이름을 올렸다.

제암산 자연휴양림 숙박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영광군, 강상구 전라남도 예산담당관 초청

영광군은 지난 4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강상구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을 초청하여 군 산하 전 직원 대상 국비확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약 2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 강상구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국가세부사업 발굴사례, 세부사업 설명서·서면질의서 작성 방법, 국고사업계획의 지자체 맞춤형 특색 사업 발굴사례 등 국고 현안사업 확보담당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강의했다.

특히 국고현안 사업의 올바른 주소 찾기 특급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과 '사전절차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 관련 실무에서 쌓은 많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며 '승리하는 국고예



산 확보 10대 전략'을 열정적으로 전달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오늘 강의가 앞으로 우리 군의 국고사업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 공직자가 오늘 강상구 전남예산담당관 초청 강의 내용을 업무에 바로 적용하여 열악한 군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곡성군, 아플 땀 농사도 쉬세요

몸이 아파서 농작업이나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다면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곡성군은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연중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크게 '영농도우미'와 '행복 나눔이'로 구분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를 당했거나 병을 앓는 농가에 농작업을 대신할 사람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은 고령 및 취약농가에 집안일을

도와줄 봉사자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에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신청 대상이 된다. 영농도우미의 1일 임금 7만 원에서 30%(21,000원)만 자부담하면 되며, 70%(49,000원)는 국

가에서 지원한다. 연중 최대 이용 가능일 수는 10일이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못하게 될 때에는 '농가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전라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출산 전후 최대 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도우미 인건비 68,720원(1일 기준)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 나눔이 서비스는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자원봉사 형태인 행복 나눔이(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

인 가구가 대상이다.

행복 나눔이(자원봉사자) 1인의 활동비 1만 5천 원 중 70%는 국가가 지원한다. 30%인 4천 5백 원은 농협에서 지원한다. 세대당 연간 최대 12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거주지에 소재한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작년 한 해 곡성군에서는 111개의 농가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했다. 행복나눔이는 553농가에서 이용했다. 곡성군 농정과 담당자는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들이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인력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며, 신청절차도 까다롭지 않다."고 당부했다.

고흥군, 따뜻한 겨울과 강우 지속에 따른 맥류 관리 지도 나서

고흥군은 기상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파종기 이후부터 금년 1월까지의 평균기온이 3.9℃로 평년 대비 1.4℃ 높은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어 맥류의 생육이 신장함에 따라 웃거름 주기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현장 기술지도에 나섰다.

예년에는 맥류 웃거름 주는 시기가 겨울동안 생장을 멈춘 작물이 다시 자라는 생육 재생기에 맞추어 웃거름 주기를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겨울동안 날씨가 따

뜻해 맥류의 생육정지가 없이 맥류가 웃자라 있어 시비방법을 달리 하여야 한다.

생육상태에 따라 웃거름은 2월 상순에 평년대비 1/2 감량하여 주고 맥종별 요소비료 시비량은 겉보리, 쌀보리 및 밀은 10a당 5~6kg, 맥주보리는 4~5kg이다.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웃거름 주기를 완료하여야 이상당 낱알수가 증가하고 생육후기까지 비료효과가 유지되어 등숙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웃거름을 준 후 보리밭기를 해주면 겨울철 뜬 토양을 안정화시켜 주고 보리의 신장을 억제하여 새끼치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른 봄에 서릿발이나 건조해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상 고온 기후변화에 따른 맥류 수량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철저한 포장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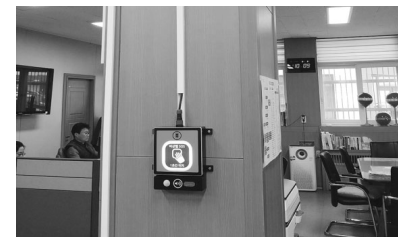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수강생 모집

여수시가 2020년 '제1기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 8백여 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과목은 총 40개 과목으로 양재·제과제빵·흡배선 등 기능 12개 과목과 문인화·한지공예·댄스스포츠 등 취미 16개 과목, 생활 행복초급 등 간접 12개 과목이다.

여수=김도현 기자

순천시, 행정복지센터에 '안심벨' 설치



순천시는 여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경찰서(112 신고센터)와 연계한 안심벨을 민원담당부서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설치하여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

했다.

비상벨 설치는 그동안 민원인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 고압적 태도로 담당 공무원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는 안전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한 만큼,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